

누가누가 잘하나... 감독이 지켜보고 있다



**플로리다
TIGERS
캠프를 가다**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연습경기
엔트리 28자리 놓고 양보 없는 경쟁

맷 감독, 16경기 통해 1차 밑그림
“탈락자 발생할 수 있다” 언급
시범경기까지 총 28게임 실전 검증

2루수 김선빈·유격수 박찬호
3루수, 이적생 장영석 ‘후보’
홍상삼·김현수 ‘선발 어필’ 무대

‘호랑이 군단’의 생존 싸움이 시작된다.
KIA 타이거즈가 21일(이하 한국시간)으로 스프링캠프 첫 실전에 나선다.
미국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 캠프를 차린 KIA는 그동안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체력·기술 훈련 등을 진행했다.
20일 마지막 휴식일을 보낸 선수들은 이제 ‘메이저리그식 논스톱’ 캠프에 돌입, 내달 5일까지 휴식 없이 매일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연습 경기 첫날은 A조와 B조로 나눠 두 경기가 진행된다.

오후 1시에는 플로리다 독립리그 연합팀과 홈경기가 펼쳐지고, 오후 6시에는 플로리다 사우스웨스턴대학팀과 원정경기가 예정돼 있다.
실전이 시작되면서 선수들의 경쟁도 본격화된다.

맷 윌리엄스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KIA는 선수만 54명에 이르는 대규모 캠프단을 꾸려 플로리다로 건너왔다.

새 외국인 감독이 전체적인 팀 전력을 파악하고, 육성을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많은 이들에게는 ‘기회의 캠프’가 된 셈이다. 대신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28명의 엔트리를 목표로 선수들은 한 치 양보 없는 경쟁을 벌이게 됐다. 그 시작점이 바로 연습 경기다.

KIA는 플로리다 캠프에서 총 16경기를 통해 1차 검증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이 연습경기 시작을 앞두고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거대한 캠프 단 몸집이 실전을 거치면서 줄어들 수도 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귀국 후에도 엔트리 경쟁을 위한 실전은 계속된다.

KIA는 3월 14일 시범경기를 앞두고 두 차례 연습경기를 준비했다. 3월 11일과 12일 각각 NC, KT 2군과의 연습경기를 치른 뒤 시범경기 10경기를 소화한다.

윌리엄스 감독은 28차례에 이르는 실전 무대를 통해서 2020시즌을 위한 리허설을 끝내게 된다.

이번 캠프에서 가장 시선이 쏠리는 자리는 중견수와 3루수다.

이창진이 허리 부상으로 귀국하면서 중견수 경쟁에 돌발 변수가 생겼다. 이에 따라 내·외야를 오가며 훈련을 진행해왔던 최원준이 외야에서 확실한 포지션 찾기에 나서게 됐다.

3루수에서는 장영석이 수비 점점을 받는다. 안치홍의 이적과 이범호의 은퇴로 빈틈이 생긴 내야는 2루수 김선빈, 유격수 박찬호로 큰 틀을 잡았다. 박



미국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인 KIA타이거즈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플로리다=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찬호가 유격수로 이동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3루에는 ‘이적생’ 장영석이 가장 인성적인 후보다.
윌리엄스 감독은 장영석의 타점 능력과 파워에

집중하면서 타격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연습 경기를 통해서 실전 수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마운드에서도 ‘이적생’들의 선발 경쟁이 전개된다. 홍상삼과 김현수가 연습경기에서 선발 어필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wool@kwangju.co.kr

“선수들 잘 할 준비됐고 나는 게임 준비 됐다”

맷 윌리엄스 감독

3주간 선수들 몸 만들기 집중
포지션 감각·경기 이해력 등
연습경기 통해 모든 것 판단
경쟁 통한 전력 재구성 예고

“준비는 끝났다.”

KIA 타이거즈의 맷 윌리엄스 감독이 2020시즌을 이끌어 갈 것에 멤버 고르기에 나선다.

미국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는 21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시와 오후 6시 두 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체제로 전환한다.

낮선 나라의 낯선 팀에서 지휘봉을 잡은 윌리엄

스 감독에게는 2020시즌을 위한 확실한 지도를 그리는 시간이 시작됐다.

윌리엄스 감독은 KIA와 계약을 하자마자 한국에 들어와 마무리캠프를 지휘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은 빠진 캠프였고, 스토브리그에서 선수단 변화도 있었다.

윌리엄스 감독의 머리에 선수 개개인의 데이터는 입력돼 있다. 꼼꼼하게 선수들의 성적 등을 살펴보고, 훈련을 통해 선수가 가진 면면도 확인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실전에서의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윌리엄스 감독의 판단이다. 그는 스프링캠프 연습 경기를 시작으로 시범경기 등 총 28경기를 지휘하면서 필승 라인업을 구상하게 된다.

반환점을 돈 캠프에 대해 윌리엄스 감독은 일단 만족감을 보였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이 캠프에 오기 전에 스케줄 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 온 것 같다. 처음 2-

3주간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고 훈련도 잘 따라와 줬다”며 “이제 우리는 게임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선수들도 잘할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캠프 초반에는 선수들에게 익숙한 3일 훈련, 1일 휴식 방식으로 했고, 이후 미국식으로 쉬는 날 없이 연습경기 일정이 진행된다. 경기 리듬을 살리기 위해 매일 경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진이 허리 부상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캠프에 남아있는 선수는 53명. 대규모 선수단이 꾸려진 만큼 연습경기를 통해서 선수단 몸집 줄이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처음에는 훈련과 경기조를 나눠서 진행하는데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했다. 경기를 하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을 데리고 가는 게 첫 일주일의 시나리오”라며 경쟁을 통한 전력 재구성을 예고했다.

‘제로 베이스’에서 새 전력을 꾸려가고 있지만,

베테랑에 대한 예우는 있을 예정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베테랑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경기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면서도 “베테랑들은 어린 선수들보다는 천천히 시즌을 준비하는 게 낫다. (훈련조와 경기조 나눠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베테랑 선수들은 2-3타석 소화하게 하고 젊은 선수들을 기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그라운드에서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전력 구상을 하게 된다. 많은 경기가 예정된 만큼 차분하게 넓은 시야로 선수들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모든 부분을 보려고 한다. 선수들은 각각의 다양한 포지션에서 감을 살리려고 할 것이다. 어떻게 타이밍을 잡아가는지, 경기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보고 싶다”며 “28경기를 잡아봤기 때문에 경기를 치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많다”고 밝혔다.

/wool@kwangju.co.kr



귀국한 손흥민 골절된 팔 오늘 수술

오른팔이 부러진 상황에서도 멀티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친 ‘손세이셔널’ 손흥민(토트넘·사진)의 부상 부위가 3년 전 부러져 수술했던 ‘전완골부 요골’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흥민은 21일 수술을 받는다.

손흥민 측 관계자는 20일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손흥민이 어제 입국해 오늘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라며 “수술은 21일 오전에 받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병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지난 16일 애스턴 빌라와 2019-2020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추가 시간 2-1을 만드는 역전골과 후반 추가 시간 3-2 승리를 결정하는 ‘극장골’을 꽂았다.

손흥민은 전반전 킥오프 30여초 만에 상대 수비수와 강하게 부딪힌 뒤 오른쪽 팔로 땅을 짚는 과정에서 오른쪽 통증을 호소했지만 참고 플레이를 뛰었다.

토트넘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오른팔 골절 사실을 공개했고, 조제 모리뉴 감독도 손흥민이 이번 시즌 내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전망을 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은 19일 조용히 귀국해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해 정밀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 손흥민은 3년 전과 똑같은 오른팔 전완골부(척골·요골) 요골이 부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손흥민 측 관계자는 “3년 전 다쳤던 부위에서 2cm 정도 위쪽이 부러졌다. 관절 부위가 부러지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며 “지난번에는 절단면이 수직이었는데 이번에는 비스듬하게 부러졌다. 떨어질 때 충격이 지난번보다 더 컸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1일 수술대에 오르는 손흥민은 이번 주말까지 병원에 입원하며 수술 경과를 지켜본 뒤 퇴원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권순우, 상승세 타고 4강 가자~

텔레비치오픈 테니스 8강행

권순우(82위·CJ 후원)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텔레비치오픈(총상금 60만2935달러) 8강에 진출했다.

당시시정 소속인 권순우는 2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텔레비치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단식 본선 2회전에서 라이언 해리스(433위·미국)를 2-1(6-4 3-6 7-6(7-0))로 제압했다.

이로써 권순우는 최근 타타오픈과 뉴욕오픈에 이어 3주 연속 투어 대회 8강에 오르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권순우는 라일리 오펜카(54위·미국)와 3회전에서 맞붙는다.

오펜카는 키 211cm 장신 선수로 강한 서브가 주특기다. 이날 매켄지 맥도널드(159위·미국)와 2회전에서도 2-0(6-3 6-4) 승리를 거두며 최고 시속 224.6km의 빠른 서브를 앞세워 에이스 17개를

터뜨렸다.

권순우는 키 180cm로 오펜카보다 30cm 이상 작고 이날 2회전 서브 최고 시속도 202.6km로 오펜카와 차이가 컸다.

랭킹 포인트 45점과 상금 1만6990달러(약 2000만원)를 확보한 권순우는 다음 주 세계 랭킹에서 70위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권순우의 개인 최고 랭킹은 지난해 9월 기록한 81위다.

권순우는 이 대회 전까지 투어 대회 단식 8강에 세 차례 진출했으나 4강에는 한 번도 들지 못했다.

이번 대회 4강에 오르면 권순우는 다음 주 세계 랭킹 60위대까지 바라볼 수 있다. 만일 8강에서 패할 경우 75위에서 80위 사이가 예상된다.

이날 권순우가 꺾은 해리스는 현재 세계 랭킹 400위대에 머물러 있지만 2017년에는 40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연합뉴스